

---

# 5분 자유발언

-태극기 게양 문화 확산 활성화 정책 제안-

---



고성군의회  
(이정숙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숙 의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해외에서 태극기를  
본 적 있으십니까?

낯선 거리,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우연히 마주한 태극기는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작은 깃발 하나가 그 순간만큼은  
고국을 떠올리게 하고,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이 저절로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경기에 나설 때,  
우승과 함께 경기장에 태극기가 걸리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우리 모두는 하나 되어 벅찬 감동과 자긍심으로  
국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정작 일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지난 2022년 9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태극기 게양 행태 및 태극기에 대한 이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기를 달아야 하는 7개의  
국경일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태극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40%에 달했습니다.

또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태극기를 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태극기가 없어서’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속에서 태극기를 쉽게 구입하거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국기 계양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실질적인 지원책과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할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과, 태극기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공장소의 태극기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등에서 훼손된 태극기가 계양되어 있거나 아예 계양되지 않은 사례를 간혹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에서는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자를 지정하여 책임 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훼손되거나 오염된 태극기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군민이 직접 신청해 낡은 태극기를 새 태극기로 교환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를 통한 무상 교환 제도 도입과 이를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태극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활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고성군 관내 아동·청소년 사업과 연계하여  
태극기 만들기, 태극기 그림 공모전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이를 통해 미래세대뿐 아니라  
온 군민이 자연스럽게 태극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에서 앞장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합니다.

내년도 군 제작 수첩이나 달력에  
‘태극기 다는 날’을 표기하고,  
누리집, 마을방송, 현수막 등을 통해  
군민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반복적이고 생활 밀착형 안내를 이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성군은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  
그리고 고장에 대한 자긍심이 강한 지역입니다.

이런 고성에서조차 국경일에 태극기를  
달지 않는다면,  
그 상징성과 의미는  
점차 희미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태극기 달기 운동은 단순히 애국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속에서 나라를 기억하고  
후대에게 전할 소중한 가치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고성군이 앞장서서 태극기의 정신을 되살리는  
지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폭염과 높은 습도로  
유난히 힘든 여름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염분 보충으로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